

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말씀을 읽어요.

읽을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외울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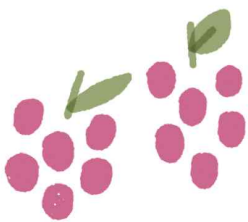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

포인트익히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자.

적용활동

달라진 내!



1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3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4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5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을 기억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어 행동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롭게 변화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다마스쿠스)이란 동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신 분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성령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있었어요.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충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 매일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말씀을 탐구해요.

- 1)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나요?
- 2)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사울은 곧바로 어떤 일을 했나요? (행 9:20)
- 3) 다음 말씀에 빈칸을 채우고, 함께 외워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하여 택한 나의 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